

신영자 군산시의원,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이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및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의정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 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물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행복 실현에 기여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와 의원을 대상으로 공경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신 의원은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선진미래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산=남현봉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은 22일 남원원예농협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남원원예농협 조합장과 임원진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와 주요 법률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제사업장을 현장 방문에 기계·기구 등 시설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점검했다. 최한호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 저소득가정 생선 나눔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는 22일 저소득가정에 생선세트를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협의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저소득가구 5세대에 생선세트를 전달했다. 저소득가정 생선 나눔은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추진된 나눔으로 매주 저소득 5가구에 2만 원 상당의 제철생선을 지난 2018년 7월부터 전달해오고 있다. 황승일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는 요즘,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영양 민점 생선전달과 함께 인부도 살림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학생과 대화 통해 '소통'

김동원 전북대 총장, '즉문즉답'으로 총학생회 요청사항 대책 마련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새 학기를 맞아 21일 오후 학생들을 만났다. 2022년도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장경수 총학생회장 등 총학생회 임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했고, 김동원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이에 대해 답하는 '즉문즉답'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안전한 학사 운영과 강의자료 제공,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 구정문 일원 오토바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수확권 보장을 위한 강의자료 제공과 LMS 정비 등의 개선하고, 안전한 학생활동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제공도 약속했다. 특히 김 총장은 구정문 일원 오토바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학생회와 학생과 총무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경수 총학생회장은 "총장님과 보직교수님들이 한자



리에서 우리의 요청을 듣고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을 세심한 부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학생과 동행하는 안전한 전북대를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박성광 전 전북대병원 교수,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전 신장내과 박성광 교수가 제21회 한미수필문학상에서 '우수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 원 전액을 병원 발전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달식은 본관 2층 온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과 김경화 대의협력실장, 김진우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후원금을 기부한 박성광 교수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40여 년간 전북대병원 에 재직하면서 만성신장병 환자 와 이식 환자를 치료해왔다. 재직기간 동안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였으며 그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정년퇴직 한 박교수는 함께하는 내과 원장으로 부임했다. 박 교수가 이번에 기부한 500만원의 발전후원금은 의료계 신춘문예인 제21회 한미수필문학상에서 '협력하여 선



을 이루는 기적, 뇌사자 장기기증'이란 주제의 수필로 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전액이다. 박성광 교수는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 장기기증과 이식 환자 치료 및 수술을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원금이 이식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병원 발전을 위해 쓰여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영화 마케팅지원 작품 공모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영화마케팅지원 사업의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영문 번역 및 자막제작 지원, 국내외 영화제 출품비용 지원, 포스터 등 선제물 제작지원, 상영활동 지원 같은 기타 지원 등 4개 항목이며, 항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총 7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해 총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품의 연출자가 1편만 신청 가능하다. 2022 전주영화마케팅지원은 2021년도 전주영상위원회 제작지원 사업 결과작 및 만 18세 이상의 전라북도 거주 연출자, 전북지역 내 영화·영상 기관·단체의 2021~2022년도 제작지원 및 콘텐츠 개발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장·단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작품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전북 소재의 제작사나 상영 단체의 상영활동 지원을 추가해 제작 작품의 성과 확대 및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2022 전주영화마케팅지원 작품 접수는 4월 5~12일까지로,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f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기획홍보팀 이메일(jfc@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63-286-0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하이테크팜, 교육협력 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2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하이테크팜(주)과 교육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김동주 국제교류원장, 고영학 스마트팜 협동조합 이사장, 박민 하이테크팜(주) 대표, 문병하 사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의 기술 교육생 및 유학생 교육 △첨단 스마트 팜 교육 △교육 인력개발 △공공 홍보 및 마케팅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우석대는 하이테크팜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등 한국 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하이테크팜(주)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박민 대표는 "선도적이고 창조적인 교육협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석대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학 이사장은 "하이테크팜(주)과 우석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첨단 농업기술교육이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글로벌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합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림책 214권 기증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으로부터 그림책 214권을 기증받았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팔복예술공장의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에서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 그림책' 기획전시 협력을 시작으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출판진흥원은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의 독서·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그림책 기증 역시 전주시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인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증된 도서는 국내 출판사 58곳에서 출판된 214권의 그림책으로, 어린이 필독 도서부터 2022년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에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우로마'까지, 출판진흥원이 추천하는 다양한 구성의 그림책들을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과 씨니카페 그림방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